

세월호 심판...10월 광주지법 국민 이목 집중

광주지법 10월 일정 보니

20일 광주 법원·검찰 국감 가족들 최후 증언도
21일 세월호 선원 구형
31일 청해진 해운 구형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책임을 묻는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서 이준석(68) 선장 등 15명의 선원들에게 어떠한 형벌이 내려질 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오는 21일 결심(結審) 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되면, 법원의 결론만을 남겨놓게 된다.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도 오는 31일 검찰 구형이 예정돼 있다. 국회도 애초 방침을 바꿔 광주지법·고법, 광주지검·고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20일 진행, 세월호 침몰 참사 및 유병언 수사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날에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동영상 상영과 가족들의 최후 증언 등을 포함한 재판도 계획돼 있다.

◇1심 재판 막바지, 사형 구형하나=광주지법은 오는 21일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 6월 10일 첫 재판이 시작된 뒤 4개월 만에 구형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법원은 4개월째 주 4~5일씩 집중 심리 방식으로 침몰 원인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쉽게 재판을 진행해왔다.

검찰측은 오는 15일 피고인 신문문을 끝으로 사실 심리가 끝나면 21일 이 선장 등에 대해 살인 등을 적용, 구형을 할 방침이다. 이 선장의 경우 주위적으로 살인 혐의가, 예비적으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에 최근 유기치사·상 혐의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돼 법정형량상 최고 사형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검찰 내부에서도 선원들의 나이를 고려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형편이라 실제 사형 구형까지 이어질 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첫 재판부터 분분했던 '부자위에 의한

이준석 선장 등 법정최고형 여부 관심...검찰은 낙관 증인 80명·증거 3000건 넘는 등 갖가지 기록 남겨

살인' 혐의가 재판을 통해 입증됐느냐는 여전히 법조계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신문,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승객들을 '나 몰라라' 한 선원들의 무능함, 승객들의 안전은 아랑곳없이 캔맥주를 마시는 '무책임함' 등을 밝혀온 만큼 사실 관계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고 재판결과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

◇"상당수 의혹 풀려"=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제기됐던 여러 의혹은 20여차례의 재판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데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당장, 사고 초기 제기됐었던 '복판나 총돌에

따른 침몰' 의혹은 구조 동영상, 전문가 자문단의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총돌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세월호 항적이 잠시 끊겼던 데 따른 의혹도 "데이터 수신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는 전문가 증언을 통해 해소됐다. 조타기 고장 여부도 피고인 신문과 전문가 조사를 거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무리한 증·개축으로 인한 복원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항해사와 조타사의 운항 미숙까지 맞물리면서 침몰로 이어졌다는 침몰 원인이 한꺼번에 재판 받을 수 있도록 법정 구조를 바꾸고 보조 범정을 마련하고 안전사원에도 영상·음향 설비를 갖춰 피해자 가족들이 재판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해 '사법 사상 최초'라는 말이 나왔다.

◇'세기의 재판' 갖가지 기록도=전례가 없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갖가지 기록도 남고 있다. 그동안 증인대에 선 증인만 선박전문가, 단원고 학생 등 생존 승객, 해경, 어민 등 80명이 넘었다. 1심 증인만 놓고 보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12·12, 5·18사건(군 형법상 반란 및 내란 사건)으로 법정에서 선 증인(41명)보다 훨씬 많다. 남은 재판 일정을 고려하면 사상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였던 12·12, 5·18 재판(28차례)보다 더 길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그동안 채택된 증거만 3000건을 넘고 공판 기록도 4000건을 웃돈다. 15명의 피고인이 한꺼번에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안전사원에도 영상·음향 설비를 갖춰 피해자 가족들이 재판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해 '사법 사상 최초'라는 말이 나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우리밀 이렇게 생겼구나"

2일 광주시 광산구 송산유원지에서 열린 '제8회 광산 우리밀축제' 체험행사에 참가한 유치원생들이 통일을 직접 만지며 즐거워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수형자에게 짧은 머리 강요는 위법"

'이발 거부' 징벌받은

트랜스젠더 수형자

교도소장 상대 소송 승소

"머리를 길게 기르는 건 단정하지 않다"는 식으로 수형자에게 짧은 머리를 강요해온 교도소의 '위법' 행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가 없는 데도, "긴 머리를 묶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정하지 못하다"며 머리를 짧게 자를 것을 금지하거나 명령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강호)는 2일 트랜스젠더 수형자 김모(34)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취소' 소송에서 징벌을 취소하도록 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육체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성 소수자'로, 지난 1월 특수감도 형의로 3년형을 선고받아 수감중인 상황에서 "위생을 위해 긴 머리를 자라"는 교도소측 요구를 거부했고 이후 곧바로 진행된 독방 검사에서 허가

없이 보온덮개 등을 소지한 사실이 드러나 징벌위원회를 거쳐 금지 9일을 처분받자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당시 "강제 이발은 법적 근거가 없고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위법"이라며 "사건 당일 시행된 방 검사는 이발 지시를 거부한 데 따른 보복으로 징벌 강도를 찾으려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형집행법이 두발 또는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도관이 수용자 본인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두발 단정함을 유지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두발을 짧게 자를 것을 지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두발의 단정함을 유지하는 게 두발의 길이를 짧게 유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징벌 원인 가운데 허가 없이 물품을 소지한 규율 위반은 인정되지만 그에 따라 내린 금지 9일의 징벌도 현저히 불합리하다"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홍도 유람선 선장 입건...선박 결함 여부도 조사

홍도 해상 유람선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목포해경은 2일 신안선적 홍도 바캉스호(171t) 선장 문모(59)씨를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은 사고 당시 배에 있었던 항해사, 기관장 등 선원 4명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입건할 방침이다.

문 선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10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동쪽 110m 해상에서 관광객 105명과 선원 등 110명을 태우고 운항하던 중 추위를 게을리 해

유람선을 암초에 부딪혀 좌초시켜 승객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당시처럼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이는 등 기상악화 때는 기업과객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데도 문 선장은 무리하게 바깥 불었다"며 문 선장의 운항 부주의를 지적했다.

해경은 조선소로 예인한 유람선 선체를 들어 올려 구명 물뿔 부위와 함께 당시 엔진이 정상 작동하고 조타기도 이상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학업중단 숙려제' 전남 학생 66%가 외면

참여율 34% 불과...광주는 41%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시행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대상 학생 절반이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남은 대상 학생 중 34.2%만이 프로그램에 참여, 제주(26.0%)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최하위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해자 의원이 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전국 시도교육청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학업중단 숙려제 의무 대상 학생(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교생) 8534명 중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4815명으로 56.4%에 불과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

에게 최소 2주 이상 ~ 최대 3주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 신중한 고민 없이 이뤄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시범운영 해오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지역별로는 대구 100%, 경남 80.9%, 인천 78.7%, 충남 76.0%로 참여율이 높은 반면 제주와 전남, 충북(40.3%), 광주(41.7%), 서울(41.9) 등은 참여율이 저조했다.

박해자 의원은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에 의무대상 학생의 절반 가까이 참여

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심 부족 때문"이라며, "숙려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대부분 학업중단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숙려제 등을 통해 학업중단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업중단 숙려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구교육청의 경우처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선 학교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프로그램도 상당 위주에서 진로·직업·인성 관련 체험 활동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찰이 손님 가장 급습...외국인 여성 고용 원룸서 성매매 '털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주택가 원룸에서 은밀하게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손님을 가장한 경찰의 급습에 털미.

○~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손모(35)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 주택가에서 원룸 4개를 열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여성 T

(28)씨 등 2명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을 해왔다는 것.

○~지인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국에 서버를 둔 한 성인 사이트에서 남성 회원정보 1만6000개를 사들인 뒤 '짧고 굵게' 성과를 내기 위해 과하게 업소홍보 문자를 보낸 것이 화근이 된 것 같다"고 진술.

/김형호기자 khh@

무등도서관 사거리 최고 상권
참조은 빌딩 임대

2층 58평 3·6·7층 108평
주차타워 완비

5층 참조은인파
 4층 한길통중 의학과
 3층 신한은행
 1층 신한은행, 푸른약국

입점운영중

문의 : 010-2007-8848

NAVER **단비플라워**

축하와환3단 근조와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전라도 전통 깻갈김치
담그기 체험 참가자 모집

●일시 : 2014. 10. 1 ~ 11.12 매주(수) 오후2시(10.29일 제외 총 6회)
 ●장소 : 나주목사교을시장 광장
 ●대 상 : 매회 30명 이내(단체접수 가능) ●체 협 비 : 3,000원
 ●기본준비 : 직접 담그신 김치 반포기 증정
 ●접수문의 : 나주목사교을시장 문화관광사업단 ☎ 061) 332-1574
 ※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blog.naver.com/najumarket) 참고

나주목사교을시장 상인회, 문화관광사업단, 중소기업청, 나주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